

고소설의 사상과 아름다움

김 경 완^{*)}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홍길동전>의 인간존중사상과 창조미
3. <춘향전>의 정절사상과 인내미
4. <심청전>의 효사상과 섬김미
5. <홍부전>의 우애사상과 수용미
6.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우리의 대표적인 고소설인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을 중심으로 작품의 사상에 초점을 맞추어 아름다움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문학은 작품 구성의 미학과 함께 사상을 간직하고 있기에 더욱 아름답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에 스며들어 있는 사상을 찾아내어 정리하는 일은 그 작품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독자는 작품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게 된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까지 독자에게 남아서 자양분을 제공해주는 것은 그 작품에 आरो새겨져 있는 정신 즉 문학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문학사상과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탐색하는 일은 작

*) 본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인문과학연구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품을 비교적 균형있게 이해하는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소설 중에서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은 대표적인 고소설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은 그 내용이 익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칫 구체적인 문학사상에 관한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이에 기존의 소재 및 주제 연구의 성과들을 참고로 본문의 해석에 기초하여 이들 작품의 문학사상을 검토하며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들 고소설이 가지고 있는 문학사상은 당대의 중요한 정신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설에 나타난 사상과 깊은 만남을 갖을 수도 있다. 그 자체로 고전의 향기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작품 분석을 하는 텍스트는 가급적 정평이 나 있는 주요 異本들을 활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판소리 사설이 기존 이본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분석에 있어서 <홍길동전>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을 사용할 것이다. <춘향전>은 병오판 33장본을 사용하기로 하며, <심청전>은 김동욱 90장본을 사용할 것이다. <홍부전>은 경판본을 주된 자료로 사용하되, 박봉술 창본으로 앞의 자료를 보완하고자 한다.

2. <홍길동전>의 인간존중사상과 창조미

<홍길동전>은 국문소설의 효시로 인정된 작품으로서 우리 소설사에서 매우 소중한 작품의 하나이다. 이 소설의 본격적인 연구는 <洪吉童傳研究>(鄭鉉東, 1965)로부터 시작된다. 이 연구에서 택한 텍스트는 京板本이며 부록으로 作品校主가 붙어 있다. <洪吉童傳 木版本片考>(朴魯春, 가람李秉岐博士 頌壽論文集, 1966)에서는 京板本·完板本·安城板本の 차이점을 중심으로 본문을 비교하고 있다.

<洪吉童傳異本攷>(丁奎福, 국어국문학 48·51호, 1970·1971)에서는 京板 翰南本·漁靑橋本과 完板本·安城板本, 活版本 중 世昌書館本·文言社本·六造社本·德興書林本·禮和出版社本·翰南書館本 등을 언급하고, 이가원 소장의 필사본까지 상호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같은 점을 밝히고 있다. <漢文本洪吉童傳檢討>(李鐘周,

국어국문학 99호)에서는 西江大 도서관에서 발견된 한문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西江語文 6집(1988)에 그 영인본이 소개되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고 김양선 교수 소장)인 <홍길동전 단>은 매행 30자 내외, 매면 12행, 총 37면의 정결한 필사체 작품이다. 이 작품은 安城板과 동일 계통의 소설로 파악되고 있다.¹⁾

<홍길동전>이 사회참여의 문학으로 17세기 초엽의 소설로서 일반 대중을 의식하고 나왔다는 것은 흥미로운 문학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홍길동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홍길동은 흥판서의 처첩 소생 서자였다.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던 사회적 불합리에 반항하면서, 그는 집을 나간다. 그는 도적의 괴수가 되어 활빈당을 조직하고, 8도에 출몰하면서 탐관오리와 사찰의 재물과 보화를 약탈한다. 그는 신출귀몰의神通력을 가지고 8도를 횡행한다. 끝까지 토벌할 수 없었던 국왕은 그의 부친과 형으로 하여금 회유케 한다. 그는 국외로 빠져나가 울도국이라는 나라의 국왕이 되어 새로운 이상국을 건설한다.

이 소설에는 혁명을 일으키려 했다고 사형당한 관원이며 대문장가였던 작자 허균 자신의 革命兒의 幻想이 담겨 있다. 아울러 양반집 庶子들의 사회 반항의식과 서민들의 의식을 감정이입해서 작자 자신의 것으로 表象하고 있다.²⁾

홍길동의 작자로 알려진 허균(1569~1618)은 許曄의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나서 17세가 되던 1585년에 金大涉의 2녀와 결혼했으며, 21세에 생원 시험에 합격했다. 선조 40년인 39세에 삼척부사로 있다가 파직되었고, 광해군 2년인 42세에 殿試對讀官으로 일하다가 다시 파직되며, 48세에 형조판서에 올랐다가 50세가 되던 1618년 광해군 10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가정적으로 매우 불행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갈등을 겪었을 것이나, 그의 생애를 통해 두드러지는 것은 잦은 파직과 從事官으로서의 활약상이다. 허균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불우한 사람들과 벗하며 그들을 동정하다가 끝내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는 문인 중에서도 李太白·陶淵明·蘇東坡를 가장 흠모했다고 한다.³⁾

1) 蘇在英, 洪吉童傳 解題(숭실대본), 『崇實語文』제7집, 崇實語文學會, 1990. 157~158쪽. 참조.

2) 金東旭, 『國文學史』, 日新社, 1987. 175~177쪽. 참조.

〈홍길동전〉에는 작자의 시대적 理想, 즉 문학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이제 그 내용을 고찰하며 〈홍길동전〉이 지니고 있는 한 특징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한다.

홍길동의 부친인 홍판서는 귀한 자식 낳을 꿈을 꾸 뒤 부인에게 갔다가 거절당하고 시비 춘심을 통해 길동을 낳게 된다.

기골이 비범하여 증것 영웅호걸의 기상이라 공이 일변 것거허나 부인의게 나지 못후물 혼 허더라 길동 점〃 ㄴ라 팔세되미 총명이 과인하여 혼아홀 드르면 빅을 통후니 공이 더욱 이 증후나³⁾

홍판서가 신이한 꿈을 꾸는 것은 옛 소설이 갖게 되는 전형적인 패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길동이 비록 시비의 소생으로 태어나지만 '영웅호걸의 기상'으로 꿈을 꾸는 것답게 하나를 들으면 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총명하게 자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영웅 호걸은 우리 선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인물상 중의 하나다.

길동이 '영웅호걸의 기상'이란 꿈의 결과로 태어난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주인공의 탁월한 성격을 예시해준다. 이것은 신분의 구별이 뚜렷했던 사회에서 영웅 호걸의 기상을 지닌 인물이 시비의 소생으로 태어나도록 문학적인 장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근본 천성이라 길동이 미양 호부호형 허면 문득 무지져 못후게 허니 길동이 십세 넘도록 감히 부형을 부르지 못하고 비복 등이 천덕후물 각골통한 허여 심스 중지 못후더니 추구월 망간을 당후야 명월은 조요하고 청풍은 쇼실허여 슝의 심스를 돕난지라 길동이 서당의서 글을 익사가 문득 서안을 밀치고 탄왈 디중부 세송의 나미 공명을 본받지 못후면 찰아리 병법을 외와 디중인을 요후의 ㄴ고 동정서벌 허여 국가의 디공을 세우고 일흠을 만디의 나미 중부의 쾌스라 나난 엇지 허여 일신이 적막하고 부형이 잇쓰되 호부호형을 못후니 심증이 터질 지라⁴⁾

3) 蘇在英, 〈許筠과 그의 文學〉, 『古小說通論』, 二友出版社, 1987. 101~107쪽 참조.

4) 〈홍길동전 단〉(송실대본), 『崇實語文』 제7집, 163쪽. 띄어쓰기는 필자에 의한 것임. 이후부터는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5) 〈홍길동전 단〉(송실대본), 163~164쪽.

적서차별이 시행되고 있던 시대에 이로 인해 불우한 처지에서 고민하고 있는 길동에 관한 이야기를 문학 작품 속에서 공론화 하고 있는 것은 이 소설이 독자를 향해 열려있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음을 반증한다. 庶子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현실을 작품 속에 노출시키고 그 끝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주인공의 마음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

이는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작자의 소망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존중사상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작자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 제시해 주고 있다.

길동은 무리를 모아 활빈당을 만들고 부당한 재물을 탈취하되, 나라의 재물은 손대지 않으므로 백성의 삶을 곤궁하게 하는 탐관오리와 부도덕한 축재자들을 공략한다.

조선 팔도로 단이며 각읍 수령이 불리로 저물이 잇스면 탈취하고 혹 지빈무의호저 잇스면 구제하며 백성을 친범치 안이하고 나라의 속헌 저물은 추호도 범치 안이호니 이러므로 제적이 그의취을 항복호더라⁶⁾

조선 팔도가 길동이 활약하는 공간이다. 부당한 이치로 모은 수령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백성의 것은 손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길동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부당한 재물이라도 '탈취'라는 방법으로 물건을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가 주변 인물들의 호응을 얻게 되는 것은 나라의 것과 백성의 것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따뜻한 마음 씀씀이 때문이다. 부정부패가 없고 공공재물이 공정히 관리되는 사회,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작자는 작품의 서술을 통해 갈망하고 있다. 이것을 사회개혁사상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 땅에서 부당한 재물을 모은 이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

6) <홍길동전 단>(송실대본), 176~177쪽.

며 활약하던 길동은 무리들과 조선을 떠나 한 섬에 정착하게 된다.

각설 길동이 증조 일천석을 얻고 습천 적당을 거너려 조선을 후직하고 남경사 폐도섬 드러
가 슈천호 집을 지으며 농업을 힘쓰고 후 지조를 비와 군법을 연습하니 가산이 부요한지라⁷⁾

길동은 조선의 왕으로부터 증조 일천석을 얻어 3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한 섬에 들어간다. 그곳에 슈천호의 집을 짓고 농업을 힘쓰며 군법을 연습시킨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가산이 부요하여 행복한 생활이 이루어진다. 주인공인 홍길동이 활동 공간을 조선 땅에서 남쪽의 한 섬으로 옮긴 것은 행복의 추구가 가능한 땅을 찾아서다. 좁은 안목에서 보면 기존의 공간을 떠났다는 점에서 도피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작자는 주인공이 그의 理想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지극히 창조적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창조의 아름다움이 있다.

조선 땅을 기준으로 할 때는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행복의 추구를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적극적인 공간 설정인 것이다. 이 섬이 행복 추구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사리사욕에 때묻지 않고 같은 理想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가산이 넉넉하여 농업을 힘쓰며 재주를 배워 군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에 힘쓰는 모습은 삶의 현실에 충실한 것이며, 평화로움의 상징이다. 군법을 익힌다는 것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상징한다.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군법을 익히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작자는 기존의 질서와 차별화된 새로운 공간을 설정하여 행복을 추구하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창조적인 세상을 작품 속에서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길동전〉은 인간이 비인격적인 제도로부터 자유하여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사회가 부정한 사람들로 부터 깨끗하여지고,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창조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고뇌하고 활동하고 성취하

7) 〈홍길동전 단〉(송실대본), 190~191쪽.

는 인물의 효과적인 표상을 통해 작품의 아름다운 창조미를 보여주고 있다.

3. 〈춘향전〉의 정절사상과 인내의 미

〈춘향전〉은 板本, 寫本, 活字本을 합하여 100여종의 異本을 가진 우리나라 최대의 판소리계 소설이다. 영조 30년인 1754년에 나온 〈晚華本 春香歌〉를 시작으로 200년이 넘도록 춘향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창작되며 변모하여 온 것을 보면 積層文學으로서의 한 典型을 이해할 수 있다.⁸⁾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숙종대왕 초에 전라도 남원에 사는 월매가 성참판과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딸을 낳아 春香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춘향이는 자라면서 姿色이 絶倫하고 詩書에 능한 모습을 보여준다. 남원 부사의 아들 李夢龍이 춘삼월에 방자를 데리고 광한루에 올랐다가 그녀를 타는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이몽룡이 밤에 방자를 앞세워 춘향집에 찾아가 월매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하고 춘향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이몽룡이 부친의 上京으로 함께 떠나야 될 형편이 되자 후일을 기약하고 춘향과 이별의 눈물을 나누며 춘향은 날마다 이도령의 소식을 기다린다. 남원에 신관사또 下學道가 부임해오자마자 政事는 뒤로 하고 기생점고를 시작하여 춘향을 데려오게 한다. 춘향은 변학도의 守廳을 거절하다가 투옥되고 다가오는 생일잔치에서 처형될 형편에 이른다.

이몽룡은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로 전라도 남원에 직행한다. 路上에서 춘향이 수난당하는 이야기를 들은 뒤 걸인행색으로 춘향모를 만나보고 옥중에 가서 춘향과 재회한다. 변학도의 생일에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춘향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암행어사 출도가 이루어진다.李어사는 변사또를 파직시키고 춘향이와 감격스런 만남을 가진 뒤 情懷를 풀게 되며, 함께 상경하여 正室夫人을 삼는다.

〈춘향전〉은 남원지방의 비극적인 說話를 廣大들이 喜劇的인 이야기로 꾸며서 판소리의 각본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존하는 〈춘향전〉

8) 소재영, 「水山 廣寒樓記」, 『春香傳의 綜合的 考察』, 고소설연구총서 제2집, 韓國古小說研究會 編, 아세아문화사, 1991. 468쪽.

의 지리적 배경이 남원이며 판소리의 광대들이 대부분 전라도 출신이고 문헌이나 설화의 이야기 배경 또한 남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암행어사 이야기를 더해서 남원의 비극적 전설을 행복담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 보고 있다.

〈춘향전〉의 인물, 배경, 사건은 지나친 과장적 표현도 있어 흠이 보이는 점도 있으나 다른 작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춘향전〉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성은 取材의 現實性, 背景의 鄉土性, 表現의 寫實性, 性格의 創造性이다. 반면, 構成의 飛躍性과 安易性, 표현의 지나친 誇張과 省略은 작품의 완성도에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춘향전〉이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과 서민들의 理想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⁹⁾

작품 구성에 있어서 인물들의 대립은 매우 흥미롭다. 기생의 딸 춘향과 남원부사의 아들인 이도령의 신분적 대립, 이상주의적인 춘향과 춘향의 모친 퇴기 월매와의 대립, 향단과 방자와의 대립, 춘향과 변학도와의 대립, 이어서와 변학도와의 대립이 그렇다. 〈춘향전〉이 우리나라 최고의 고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민들의 심금을 파고든 국민문학적 위대성 때문일 것이다.¹⁰⁾ 이제 〈춘향전〉의 문학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몽룡이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을 보고 마음이 끌리자 방자에게 춘향에 대해 묻게 된다. 방자가 기생 월매의 딸이라고 하자 몽룡은 신분을 따지지 아니하고 만나고자 한다.

방자 다시 엿자오디 이 고을 기생 월매 딸 춘향이란 기생 아히 나지면 추천하고 밤이면 풍월 공부후와 돌후기로 일읍의 낭자후여이다 이도령 더히하고 일은말리 글어 홀시 분명하면 잔말고 불너오라.¹¹⁾

9) 金起東, 『春香傳』, 『韓國古典小說研究』, 教學社, 1981. 846~860쪽 참조.

10) 金東旭, 『國文學史』, 日新社, 1987. 192~193쪽 참조.

11) 〈열녀춘향수절가라〉(丙午板 33張本), 설성경, 韓國古小說研究會 編, 『春香傳의 綜合的 考察』, 亞細亞文化社, 1991. 82쪽. 띄어쓰기는 필자가 한 것임. 이후의 인용에서는 작품명과 작품이 게재된 책의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신분의 차별이 있던 조선 사회에서 이몽룡의 신분은 남원부사의 아들이고, 춘향의 신분은 기생 월매의 딸이다.¹²⁾

몽룡이나 춘향으로서는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신분이지만, 당대 현실 속에서는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몽룡은 기생 월매의 딸이지만 춘향에게 마음이 끌리자 신분을 초월하여 만남을 시도한다. 뿐만 아니라 춘향의 집에 찾아가 백년가약을 맺게 된다. 그리고 이 백년가약은 춘향이 변학도의 회유로 인해 고난을 치룬 뒤 결실을 맺음으로 소설의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온다.

전혀게서 남원부사 죄목 보압시고 어사를 칭찬하시 춘향이는 정열가좌를 너리시고 어스는 병조 판서를 계수하시니 어스 성은을 축스하시고 춘향과 그 모를 서울노 울여 퍽평으로 지니 더라¹³⁾

나라의 왕이 남원부사의 학정을 평정한 어사 이몽룡을 칭찬하고, 춘향이의 정절을 귀히 여겨 '정열가좌'를 내림으로 춘향은 기생의 딸 신분에서 정경부인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몽룡이 병조판서로 내직에 부름받게 되자 춘향과 월매도 상경하여 태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 되고 있다. 여기에는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을 바탕으로 작자의 신분 초월 의지가 문학사상으로 질게 आरो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도령과 춘향의 만남은 처음부터 정절을 중시하는 춘향의 각오로부터 짝튼 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도령 호는말리 네 연세 몇치며 네 성은 무어신다 춘향이 옛자오디 연세는 십육세요 성은 성가라 호는이다 이도령 거동 보소 허 그 말 반갑도다 네 연세 드러 호니 날과 동급이요 성씨는 들으니 이성지함이라 천연 일시 분명 허다 날 섬기미 엇더 호요 춘향이 거동 보소 팔자 청

12) 춘향은 이 사실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를 춘향이 추천하다가 만난 이도령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련임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첩이라”(《열녀춘향수절가라》(丙午板 33張本), 84쪽.)

13) 《열녀춘향수절가라》(丙午板 33張本), 143쪽.

산 쟁기리며 주순을 반기 후야 가는 목 계우 열어 엿자오디 춤 불사이군이요 열 불경이부절은 옛글의 잇소오니¹⁴⁾

이 대목은 이도령이 춘향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두 사람은 16세의 같은 나이인데, 이도령은 춘향의 성씨가 '성' 가 입을 듣고 '이성지합'이라는 표현을 들어 천생연분이라고 해석한다. 춘향은 이에 마음을 열고 '열 불경이부절' 즉 열녀는 두 남자를 섬기지 않는 것이 절개를 지키는 것이라는 화답으로 이도령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춘향의 집에 찾아간 이도령이 춘향에게 석경을 주고, 춘향은 그 정표로 옥지환을 이도령에게 건넨다.

면경석경 드러니여 춘희 주며 일은 말리 디장부 정절힘이 석경빛과 갓탈진디 진토중의 새져셔도 천만연이 지니간들 변홀손야 춘향이 지비호고 석경보다 품의 품고 지도 또한 신을 닐체 섬섬옥수를 드러보리디 단속 저고리 제척 고름 어로만저 옥지환을 쓸너니여 옥수의 거러들고 단정이 꿰와후야 이도령게 들일적의 간은 목 계우 열어 옥성으로 엿자오디 너자의 진절힘이 옥지환과 갓탈지라 진히 중의 새져셔도 천만연이 지니간들 변홀 씨 잇실손야 이도령 옥지환바다 금낭의 열는너코¹⁵⁾

이도령이 춘향에게 준 석경은 변치 않는 마음을 상징하고, 춘향이 이도령에게 건넨 옥지환은 변치 않는 정절을 의미한다. 두 사람이 정표로 나누는 석경과 옥지환에 담긴 상징은 변치 않는 순수한 사랑으로서 아름다운 문학적 의미식이 곁들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옥지환 같이 변치 않는 참된 정절을 지키기로 약속한 춘향은 변사포의 회유와 수정이 있을 때 행동으로 정절 지키기를 실천한다. 춘향은 결국 태장까지 맞는 고난을 당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며 이도령에 대한 정절을 고수한다.

두척 낫슬 싹 부치니 불경이부 이 니 심사 이 띠 맛고 죽인디도 이도령은 못잇것소¹⁶⁾

14) <열녀춘향수절가라>(丙午板 33張本), 84쪽.

15) <열녀춘향수절가라>(丙午板 33張本), 90쪽.

위의 내용은 춘향이 태장을 맞으면서 언급한 십장가 중 두 번째 대목이다. 두 남자를 섬길 수 없다는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이 온다해도 이도령에 대한 마음은 변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춘향이 죽기에 임박하기 전, 어사출도가 이루어진 뒤 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어사 이도령과 상면하는 대목은 옥지환의 확인을 통해 정절의 의미가 극대화된다.

어사소기가 뭉키여 금낭을 열고 옥지환을 니여 기성 불너 춘향 주라 춘향이 지환보고 정선이 혼미후야 엇얼줄 모로다 그 손의다 썬보더니 이전의 썰적의난 손의가 꼭 맞더니 그시 옥중 고성의 몸이 축저 그려호지 혈녕 " " 후는고나 지환보고 디상보니 어제 전역의 옥문간의 걸곡으로 왔던 당군 어사소 되여 두려시 안져 쐤나¹⁶⁾

이도령이 금낭에서 꺼내준 옥지환을 건네 받는 순간 춘향은 정절 고수의 보람을 얻게 된다. 같은 옥지환이지만 이전의 것은 손에 꼭 맞았으나 옥중 고생으로 혈령 혈령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춘향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 지불한 댓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실감나게 해준다. 이를 통해 〈춘향전〉에 담겨있는 문학사상의 하나로 정절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춘향전〉은 변사또의 학정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부패척결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변사또의 학정은 그의 모진 성격이 백성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는 것으로도 어사 이도령에게 노출되고 있다.

△ 어이여 "루 상사뒤오 모지도다 " " " " 우리 골 사또가 모지도다 월삼동 취독호 형벌 몹시도 썬썬썬려서 거의 죽게 썬겨썬되 종시 썬절 안이호고 죽기로만 절단호니 그런 열녀 어디잇나¹⁷⁾

위의 대목은 농부들이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담겨 있는 가사다. 어사 이도령이 지나는 길에 이 내용을 듣게 되는 것이다. 춘향을 훼손시키기 위해 독한 형벌

16) 〈열녀춘향수절가라〉(丙午板 33張本), 110쪽.

17) 〈열녀춘향수절가라〉(丙午板 33張本), 141쪽.

18) 〈열녀춘향수절가라〉(丙午板 33張本), 123쪽.

을 가지고 있는 변사또의 모진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야 할 공복으로서 政事를 보살피기보다는 남녀의 윤리도 무시한 채 세상 삶에 탐닉하려는 변사또의 죄목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백성들의 삶을 현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려는 어사의 역할을 빛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변사또의 학정을 파악한 어사또는 변사또의 생일 잔치에 참석하여 그의 부정부패를 표현한 한 편의 시를 남긴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촉누낙시의 민누낙이요 △가성고쳐의 원성 고라 △그글쓰션 금동은 아름다운 술은 일천 사툼의 피요 옥소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사툼의 지름이라 촉불 눈물 썩러질 석의 빅성의 눈물이 썩러지고 노릭 소리 높푸 고디 빅성의 원망이 높파썩라 이러타시 지여노니 그 안이 명작인가¹⁹⁾

술동이의 맛있는 술은 백성들의 피라고 할 수 있으며, 옥으로 만든 소반의 맛있는 안주는 백성들의 기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초에서 촛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지고, 관가의 탐닉하는 노래 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도 높다는 표현이다. 작중 화자의 말 그대로 '명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어사가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이유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도 대목은 독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정화작용을 제공해 준다. 고난받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학정에서 놓여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며, 소망하던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청비 역줄 거동 바라 달갓탄 마뻬를 히갓치 들너메고 삼문을 넓더치며 암행어사출도야 혼 번을 고탐흐니 강산이 문어지고 두번을 고탐흐니 초목이 썩난 듯 세번을 고탐 흐니 남원이 우군 " " ²⁰⁾

마뻬를 해같이 둘러 뻐다는 표현은 마뻬의 원형이 해의 등근 이미지를 상징하는

19) 〈열녀춘향수절가라〉(丙午板 33張本), 138~139쪽.

20) 〈열녀춘향수절가라〉(丙午板 33張本), 139쪽.

것이며, 해가 세상을 밝히 비추듯 마패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평정의 빛을 제공하는 어사의 역할을 상징함을 의미한다.

암행어사 출도의 고탈소리 앞에서 강산이 무너지고, 초목이 떠난 듯하고, 남원이 우군거린다는 표현은 부정부패를 일삼던 사람들의 마음이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떨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 암행어사 출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변사또의 학정에서 놓여나고 춘향이 수청 요구로부터 끝까지 정절을 지키면서도 생명을 보존하며 행복한 결말로 나아가게 하는 작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춘향전〉은 남녀간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여성의 정절의식, 사회적 부패척결 의지를 문학사상으로 하며, 순수한 사랑과 고난을 이겨내는 내면성, 그리고 행복한 결말을 이끌어내고 있는 인내의미를 고결하게 보여주고 있다.

4. 〈심청전〉의 효사상과 섬김의 미

〈심청전〉은 효도를 주제로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소설이다. 이 소설은 심청의 효와 심봉사의 개안이라는 두 축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전승이나 향수의 방법과 목적에 따라 많은 異本이 나오게 했다. 이 작품은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에서 가멸지고 고귀한 신분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심봉사의 개안을 심청의 지극한 효로 이루었다는 설정은 효가 목적이면서 수단으로도 기능하도록 서사 구조를 이끌어갔다는 점도 특이한 사실이다.²¹⁾ 〈沈淸傳〉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황해도 황주의 桃花洞에 사는 심학규는 눈이 멀어 장님이 되었는데 그의 아내 꺾씨가 어질고 착한 딸 沈淸이를 낳고 죽는다. 심봉사는 심청을 업고 동냥짓을 얻어 먹이며 키운다. 장성한 심청은 심봉사 대신 먹을 것을 빌어다가 부친을 지성껏 봉양한다. 청이는 틈틈이 공부와 바느질에 힘쓴다. 청이가 才女라는 소문이 알려지자, 장승상이 養女를 삼겠다고 하지만 청이는 심봉사가 외롭게 될 것을 생각하여 거절하게 된다.

심봉사는 딸 청이를 찾아나섰다가 失足하여 물에 빠지고 지나가던 夢雲寺의 化主僧이

21) 장석규, 『심청전의 구조와 의미』, 도서출판 박이정, 1998. 277~281쪽 참조.

건져준 뒤 供養米 三百石을 내면 눈을 뜰 수 있다고 말해준다. 심봉사는 눈을 뜰 수 있다는 기쁜 마음에 이를 약속하지만 근심만 하며 별도리 없는 신세로 지낸다. 청이는 부친의 연고를 안 뒤에 인당수 제물로 자신을 바치기로 하고 삼백석을 받아 보내준다. 이를 안 심봉사는 몸부림을 치지만, 청이는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

上帝가 청이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고 용왕에게 말해 연꽃에 싸서 물위로 띄워 보내게 한다. 상인들이 이를 발견하여 국왕에게 바치는데 그 안에서 아름다운 청이가 나오자 국왕이 청이를 왕후로 봉한다. 왕후 심청은 부친 심봉사를 만나기 위해 잔치를 열고 온 나라의 장님들을 초대한다. 심봉사는 서울에서 장님 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노비를 마련해 놓지만 후비인 뽕덕어미에게 빼앗기고 걸식하며 상경한다.

심왕후는 잔치에 참석한 장님들 속에서 말석에 앉아 있는 부친을 발견하고 “아버지!”라며 부르짖는데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심봉사는 순간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 심봉사와 심청이 부녀는 함께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심청전〉의 목판본은 경판본과 완판본이 있으며, 활자본에는 1915년의 박문서관판본을 포함하여 5·6종이 있다. 天台山人은 그의 『朝鮮小說史』에서 〈심청전〉의 소재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居陀知說話’와 삼국사기에 나오는 ‘孝女知恩說話’, 전라도 觀音寺의 緣起說話, 印度의 專童子와 法妙童子의 설화, 일본의 小夜姫설화를 들었다. 인도의 開眼설화가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고유의 효녀설화와 결합되고 다른 설화들과 만나면서 조선시대에는 판소리 각본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심청이 심봉사를 이별하려는 밤에 심청의 애끓는 마음과 이별 후에 심봉사의 앞날을 근심하는 심청의 괴로운 심정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 후 상제의 명에 의해 연꽃을 타고 고국에 와서 왕후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비현실적이며, 傳奇的이고 초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비극적인 결말을 행복한 결말로 이끌어가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심청전〉은 뽕덕어미를 제외하고 모든 등장인물을 인심 좋고 마음이 착한 善人으로서 구성해 놓고 있다. 심청이도 악인에 대한 선인이 아닌 아버지를 위해 효성을 다하므로 女息된 도리를 다하는 효녀다. 이 소설이 효도를 주제로 한 것은 인간 윤

리의 근본적인 행위를 부각시킨 것이다. 가난한 심청이가 심봉사에게 희생적으로 효도하여 왕후가 된 것은 賤人이 貴人이 되고, 평민이 궁궐의 여주인이 되는 理想을 그려냄으로 여성 독자들에게 큰 꿈과 위로를 주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극의 연속으로 진행되던 전반부의 <심청전>이 후반부로 가면서 환희와 행복으로 끝맺음한 것은 독자들을 극단에서 울리고 또 다른 극단에서 웃음을 선물하려는 작품 구성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²²⁾ 이제 <심청전>의 문학사상과 그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심청이를 낳고 까씨부인이 일찍 죽게 되자 심봉사가 구걸하여 심청이를 먹여 살린다. 하지만 심청이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자 부친에게 제안을 한다. 그 제안은 눈이 안보이는 심봉사를 마음으로부터 공경하여 딸로서 올바르게 봉양하고자 하는 효성심에서 비롯된다.

그령저령 지닌 거시 칠 세가 되야신니 심청이 부친게 엿조오디 아버지 들으시오 아부 지는 안총니 부추흐니 집의 안저 계시오 나 혼자 밥을 비러 봉양호오리다 심봉사 싹씩 놀니여 이 게 웬말리야 아무리 가는 흥나 양반의 후예로서 예절조차 모을손야 네 나이 칠 세 되니 너 드러 안치고서 나 혼즈 빌 터인디 나는 드러 안고 너 혼즈 밥을 빌어야 이런 말은 말나 심청니 엿조오디 건네 말 장 상상되오서 나를 사랑하기로 그 되 소제 익난 글을 디강 들으니 부자유친은 오류의 웃듬이요 칠 세에 부동석은 사소한 예절이라 칠 세 여즈 너의 호조고 들어 안고 병신 부친 니여 노와 밥을 빌어 먹소오면 스름이라 호오릿가 옛날 제영이는 위비 디로 나라의 상소호고 양향은 위비 구완호야 효행을 아러신니 그러헌 여즈들은 남보단 낫스 오니 조석의 밥 빌기가 그리 디단호오릿가 조식의 도려오니 극기 막지 말으소서 심봉사 호는 마리 네 마리 그러 흥니 허락한단만은 남니 오직 시비하라²³⁾

심봉사가 나이가 들어가는 심청이의 바깥 출입을 자제시키는 것이 도리인 줄 생각하여 심청의 구걸을 선뜻 허락하지 않자, 심청이는 아버지 심봉사를 잘 설득한다. '남녀칠세 부동석'이나 '칠세 내외'라는 것도 오류의 으뜸인 '부자유친'보다 앞설 수 없음을 주장한다. 집에 앉아 눈이 안보이는 부친이 빌어오는 것을 먹고 있

22) 金起東, 『沈清傳』, 앞의 책, 1981. 861~868쪽 참조.

23) <심청전>(김동욱 90장본), 장석규, 앞의 책, 371~372쪽.

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옛날 효행에 대표적인 여성들을 들어 심청 자신의 논리를 타당성 있게 전개시키고 있다. 이에 심봉사는 심청의 뜻을 받아들인다.

심청이 그랄보름 혼조 밥을 빌너 나갈 제 처량하야 못볼네라 빅설은 필〃 혼 치운 날의 천스조비 쓴쳐지고 만경의 인적이 업논디 현순 빅결 현 의복의 살점니 울긋불긋 버신 발헌 집석이 박아지 엮피 써고 말근 니 난나 집 츠저 가서 위근이 비는 말리 여보시오 병신 아부지는 집의 두고 밥을 빌너 왓소오니 이 되의 혼 술 덜 자슈시고 일반지덕 베푸시오 밥 든 여인덜이 뉘 안니 탄식허리 네가 발셔 저리 커서 혼조 밥 빌너 단니논고나 불상허다 너의 모친 사라싯면 네 신세가 저리 되랴 담어션 밥이라도 익기잔코 덜어 쥬며 짐치 젓 건기드 여러 등 물을 고로〃〃 만니 쥬니 두서너 집 어든 밥니 어시 쌀이 성의가 녁〃키 되논고나²⁴⁾

아버지를 공경하여 봉양하기 위해 한 겨울에 구걸하러 나가는 심청의 모습을 매우 애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입은 옷과 신발도 마땅치 않아 심청이 몹시 추울 것이지만 이를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 동냥을 다니는 것이다. 집집마다 다니며 용기있게 구걸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효성심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얻은 음식이 넉넉하게 채워지자 심청이 귀가한다.

급피〃〃도라와서 살입 안의 그러 서며 저으 부친 부르면서 아부지 날은 침고 방은 빈 디 곱푼 비을 틀어잡고 오직이나 고디 허여섯소 아부지〃달인 줄 알고 빗비〃〃오논거시 즈연 클리 되얏소 심봉사 반기면서 니 쌀 너 오난야 오직이나 출건난나 어셔 급피 드러 오느라 심청이 손을 불며 부엌크로 드러가서 물을 솟되 얼는 데여 어더은 밥과 던운 물을 부친 압피 되리고 반찬을 가르치며 만니〃〃잡슈시오 심봉사 눈물 지으며 무상허다〃〃〃〃너의 모친이 야속허다 너의 팔자 네가 나서 밥을 빌어 이 밥 먹고 소준말가 모친 목심 죽지 안코 네 설음을 너 시킨다 심청이 옛 조오디 빌어 온 바이나마 조식의 정성이니 서러 말고 잡슈시오 조흔 말노 위로허야 날마다 어더은 밥이 혼 좁박의 오직이라 흰밥 콩밥 팻밥이며 지장밥이며 쉼〃밥 갖〃지로 어더신니 심봉사 허논마리 나는 쓴 이마다 정월 보름을 쇠논고나 허며 조야 허더라²⁵⁾

24) <심청전>(김동욱 90장본), 장석규, 앞의 책, 372~373쪽.

25) <심청전>(김동욱 90장본), 장석규, 앞의 책, 373~374쪽.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얻은 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며 아버지를 부른다. 위의 대목은 심청은 날도 찬데 아버지 심봉사가 배고파 어떻게 견디고 있을지 애처로운 마음마저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청은 추운 날씨에 손이 시려운 것도 참으며 부엌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 더운 밥과 더운 물을 준비해 가지고 들어와 봉양한다. 아름다운 섬김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다.

심봉사가 심청이 고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푸념을 하지만 심청은 오히려 자식으로서의 정성이니 빌어온 밥이지만 드시라고 권하고 있다. 심봉사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흰밥, 콩밥, 팥밥, 기장밥, 수수밥 등을 항상 먹을 수 있으니 식사 때마다 정월 보름을 지내는 것 같다고 좋아하며 기색을 편다. <심청전>의 어른공경사상이 아름답게 무르익어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청이의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효성심은 심봉사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준 화주승에게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공양미 300석을 내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결심하는데서 절정에 달한다.

심청니 디답흐되 땡닌 부친 허원키로 이 몸을 팔거니와 니몸을 사가오면 어디 썰라 흐는 잇가 선인 디답흐되 우리는 선인이라 남경 장사 가는 질의 인당슈 용왕님이 스름 계속을 뱃난 고로 낭즈 몸을 사서 계속으로 썰 테오니 갑설 절단후읍소서 더 쥬어도 썰 디 업고 털 주어도 못 씨 오니 빅미 삼빅석을 쥬읍소서 선인덜이 허락흐니 심청니 흐는 마리 니 집으로 가져오면 부요가 만홀 테오니 몽은스로 보니웁고 디사으 표을 맞더다가 날을 갖드 쥬읍소서 선인덜이 허락하고 일자는 이 달 보름날 형선할 테오니 그리 알고 지달리라 허락하고 선인을 보고 심청이 드려와 저의 부친의게 옛자오디 아버지 고양미 삼빅석을 몽운스로 쥬선하여 보니 썸니 염여 걱정 말으시고 눈 쓰기만 지달리읍소서²⁶⁾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을 약속받고 자신을 인당수 제물로 내놓는 것이다. 물론 사람을 제물로 하여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자 한다는 船人들의 발상은 인간의 생명존중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작품의 흐름 속에서 볼 때, 눈이 안보이는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26) <심청전>(김동욱 90장본), 장석규, 앞의 책. 383~384쪽.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는 심청의 마음은 효사상의 극치²⁷⁾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눈을 띄워드리기 위해 인당수 제물로 팔려가 몸을 던진 심청이는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이는 작품이 쓰여진 시대에 초월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 상제가 용왕에게 명하여 하늘이 낸 효녀 심청이를 물에 몸을 던져도 죽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잇새에 심낭조는 창희증의 드러가서 죽은 줄만 아라련니 용왕임 상제임 분부 전교하사 남히 용궁의 닐레씨되 명일 오시에 인당수의 출천지회여 심낭조가 그고디 갈 거신니 몸의 물 혼 점을 못쳐서는 중죄홀 거신니 슈궁의 모셔 뵈레 고니〃〃 두어씨가 삼연을 지닌 후의 인간으로 환송하라 부디 허슈니 아지 말라²⁸⁾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사람이 바다에 몸을 던지면 물속에서 호흡을 하지 못해 죽게 된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은 인간의 상식에서는 이미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심청전>에서는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후 새로운 삶이 전개될 수 있는 문학적 장치를 하고 있다. 그것이 상제와 용왕을 등장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작품에서 상제가 물에 빠진 심청이에게 물 한 점 묻히지 않도록 지시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이한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꽃봉지를 썬여 보니 쌍〃훈 일 미인니 얼골 턱도난 천후의 결쇠이라 황제 후신 말삼 었던훈 스름으로서 꽃봉 속의 머무논고 후신니 심낭자 아미을 쉬기고 가는 목 체우 열어 전 후 고상 후던 말 전후곡절 낫〃치 슈달 후니²⁹⁾

상제의 지시대로 용궁에서 3년을 지내고 꽃봉오리에 실려 물위로 올라온 심청

27) 심청이 인당수에 제물로 몸을 맡기는 모습을 목격한 船人들은 심청이를 가리켜 무릇 하늘이 낸 효라며 극찬을 한다. “만경창파을 저의 안방으로 알고 초뵈을 무릅쓰고 풍뎡 싸져고나 그 제는 경각간의 바롭니 사거지고 물썰니 고요후니 션인딜 후는 말니 디쳐 출천지회라”(《심청전》(김동욱 90장본), 장석규, 앞의 책, 407쪽.)

28) <심청전>(김동욱 90장본), 장석규, 앞의 책, 407~408쪽.

29) <심청전>(김동욱 90장본), 장석규, 앞의 책, 418쪽.

이는 선인들에게 발견되어 꽃봉오리가 황제에게 전해진 뒤, 꽃봉오리 밖으로 나와 자초지종을 고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심청이가 재생된 과정은 인당수 투신-상제의 지시-용궁에서 생명보존 3년 생활-연꽃에 실려 물위로 부상-황제에게 나아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상제가 심청이를 물에서 보호함으로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한 것은 심청의 효성심 때문이다. 작중 화자는 심청의 효성이 극진하여 심청을 죽게 두지 않고 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 투영된 재생사상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비극으로 삶을 끝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당대인들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심청의 재생은 딸을 잃고 그 대가로 눈을 뜨더라도 고통중에 살 수 밖에 없을 심봉사에게 심청이 바라는 온전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아름다운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청이는 궁궐에 들어가 황후가 되고, 심봉사는 눈을 뜨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심청이와 심봉사 모두 함께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된다. 이는 당대인들의 꿈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황제 비창지심 간절하야 의딘신호 연후의 호문호신니 만조빅관 중의 할임니 출판주알 옥황계옵서 지시호와 호강호여사오니 텍사관을 급피 불너 길일을 톱취호와 인연 정호옵소서 상이 맞당니 너기시고 직시 텍사관을 불너 톱일하야 법예을 갖초을 적의 누 안니 칭찬호 올니요³⁰⁾

왕이 심청의 지나온 이야기를 모두 듣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알고 심청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황후가 된 심청이는 심봉사를 만날 양으로 맹인잔치를 배설하여 부친을 만나게 된다.

심황후 엿자오디 이부지 니가 왓소 전의 열러 히 고상호든 말을 낫"치 설언호며 디성통 곡호며 이부지 니가 왓소 어서 눈을 써서 날을 보옵소서 전후 곡절을 낫"치 엿조오니 심봉사 이 말을 듣고 쑥절니아 성시야 잠절인야 허망호 말도 드러 보것다 심황후 두 무릅을 정니

30) <심청전>(김동욱 90장본), 장석규, 앞의 책. 같은 쪽.

살고 훗날께 비리 왈 비난이다" " " " " 훗날님 전의 비논이다 이부 눈을 어서 써서 천지 만물도 보옵고 인당슈 계속으로 갓센 심청이 왓스오니 부녀간의 어서 보게 눈을 뜨게 후읍소서 빌기를 다후오니 출천지회여든 엇지 천신니 감동치 아니 하리오 이부지 어서 눈을 써서 심청을 어서 보게 후읍소서 목을 안고 디성통곡하니 심봉스 어디 보자 후고 눈을 번 듯 써는니 휘황한 궁궐이메 천지가 히미하여 안니 뵈니거늘 정신을 진정치 못후을 차의 원 봉스가 다 눈을 썼다 후되 그리후건논야 그 말은 광디의 지담이제 심봉스 출천지회 심청을 하눌서 닐스름으로서 저의 부친 눈을 셋제 다른 봉스야 엇지 눈을 뜨것논야 만민이 심황후을 위로후야 격양가을 불으며 송덕후더라³¹⁾

심청은 심봉사를 대면하여 그간의 일들을 설명하고 ‘훗날님’ 앞에 부친의 눈이 떠지기를 간구한다. 뿐만 아니라 심청이가 심봉사의 목을 안고 안쓰러워 대성통곡한다. 이에 심봉사가 눈을 번쩍 뜨게 되어 심봉사와 심청이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봉사가 눈이 먼 이래 마음 속에 품어 왔으며, 심청이가 이를 보며 함께 바라던 開眼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심봉사의 눈이 떠진 결과는 공양미 300석을 전한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심청이의 지극한 효성과 간구와 애끓는 마음이 온전히 찻을 때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심청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효성이 극진하면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상이 결들여 있는 것이다.

<심청전>은 아버지 심봉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부친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헌신적으로 섬기며 효도하는 심청의 가룩한 마음과 이러한 심청이를 다시 살려내려는 초월적 재생의지, 그리고 당대인들의 꿈의 실현 정신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섬김의 미를 탁월하게 보여주는 효도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흥부전>의 우애사상과 수용의 미

<흥부전>은 형제간의 우애를 다루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당대인들의 배고픈 현

31) <심청전>(김동욱 90장본), 장석규, 앞의 책. 433~434쪽.

실을 반영하며 부의 공평한 분배와 행복을 추구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고소설이다. 작품의 異本에는 唱本 10종, 筆寫本 8종, 木板本 2종, 舊活字本 4종, 日譯本 1종 등 25여 종이 있다. <홍부전>도 다른 판소리와 같이 說話→판소리→기說의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되고 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부전> 이본들은 시조, 잡가, 민요, 무가 및 민속신앙노래, 가면극, 다른 판소리와 교섭을 통해 발달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³²⁾ <홍부전>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충청·전라·경상 3도의 어름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 놀부는 심술이 사나웠고, 동생 홍부는 善人으로서 효행이 지극하고 우애가 독실했다. 하루는 놀부가 홍부를 내쫓으며 빌어먹으라고 한다. 홍부는 언덕에 초라하게 움집을 짓고 살아갈 길이 아득한 가운데 10여명의 아이를 둔다.

하루는 홍부가 형의 집에 쌀되나 얻으러 갔는데 놀부 내외에게 매를 얻어 맞고 옥설과 구박을 당한 뒤 귀가한다. 홍부 내외는 품팔이로도 살아갈 수 없어 홍부가 김부자 대신 매편을 팔지만 판가에서 김부자의 죄가 무죄가 되었다는 바람에 대가는 받지 못하는 헛수고를 한 셈이 된다. 겨울이 가고 봄이 돌아왔는데 강남에서 제비들이 돌아와 집을 짓는다. 홍부네 집 처마에도 제비가 새끼를 키우는데 하루는 뱀이 제비집에 들어가 제비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홍부가 불쌍히 여겨 뱀을 막아주었는데 제비새끼 하나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다. 불쌍히 여긴 홍부가 실로 정성껏 동여 주자, 제비새끼가 살아나 잘 자라고 때가 되어 강남으로 날아간다.

그 제비가 홍부에게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제비왕에게 부탁하자 박씨 하나를 홍부에게 물려다 주라고 한다. 홍부가 박씨를 받아 심었더니 여문 박에서 仙藥과 寶物 등이 쏟아진다. 홍부는 富者가 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놀부가 홍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홍부로부터 부자가 된 내력을 듣고 다음 해 봄에 제비새끼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린 뒤 실로 동여 준다. 그 제비가 박씨를 하나 가져왔는데, 가을에 박을 타보니 여러 사람이 나와 놀부를 끌고 돈 3천량을 빼앗아 간다. 둘째 박에서 나온 이들은 5천량을 빼앗아 가고 셋째 박에서 나온 이들도 3천량을, 넷째 박에서 나온 이들이 다시 5천량을, 마지막 박에서는 오물이 쏟아져 나온다.

홍부는 형이 敗家亡身했다는 말을 듣고, 놀부 내외를 집에 모셔와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며

32) 柳光秀, 『興甫傳研究』, 啓明文化社, 1993. 193~195쪽 참조.

형에게도 자기와 똑같은 집을 지어 주고 살게 한다. 그래서 악독한 놀부도 마음을 돌이켜 착한 사람이 되고 형제가 화목한 삶을 살게 된다.

〈홍부전〉은 홍부가 형 놀부의 집에서 쫓겨나오는 대목, 홍부가 언덕에 움집을 짓고 아이들과 살아가는 대목, 홍부가 놀부의 집에 먹을 것을 얻으러 갔다가 매만 맞고 나오는 대목, 홍부가 제비새끼의 발을 고쳐 주고 그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어 부자가 되는 대목, 놀부가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싸매주고 그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어 패가망신하는 대목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홍부전〉은 다른 판소리계 소설에서 보기 드물게 비현실적인 구성을 하고 있어 傳奇小說의 인 구성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에 있어서 선량한 홍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잘 표현하였지만, 심술궂고 못생긴 형 놀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實在性을 무시한 과장적 표현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홍부전〉은 살아갈 방법이 없어 허덕이는 선량한 홍부의 비참한 생활과 행복한 결말, 재물에 눈이 어두워 인간의 윤리를 짓밟고도 수치를 모르는 뻔뻔한 수전노 놀부의 상반되는 인물상을 잘 표현해 넘으로써 작품의 풍자적인 주제를 구현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홍부전〉이 〈춘향전〉, 〈심청전〉과 함께 판소리 3대 작품의 하나로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대중적이며 통속적인 권선징악의 주제가 해학과 풍자적인 표현 속에 깊은 감명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³³⁾ 이제 〈홍부전〉의 문학사상과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몇가지 탐색하기로 한다.

홍부가 놀부에게 쫓겨나 현실을 수용하며 움막을 짓고 많은 아이들과 가난하게 사는데 제비가 날아와 처마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부화하여 키운다. 이때 큰 뱀이 나타나 제비새끼들을 공격하자, 홍부가 제비 새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뱀을 쫓아낸다. 그런데 제비 새끼 하나가 공중에서 떨어지자 홍부는 그 제비 새끼를 정성껏 치료해준다.

의의 제비 새끼 혼느히 공둥의서 속셔러져 디볼틈의 발이 쟁져 두 발목이 죽근 부러져

33) 金起東, 「興夫傳」, 앞의 책, 1981. 869~874쪽 참조.

피를 흘리고 볼〃 썰거늘 홍부가 보고 펼떡 뛰여드라 드러 제비삿기물 손의 들고 잔잉이 너
 겨 호는말이 불상하다 이 제비야 은왕 성탕 은혜 밋쳐 금슈를 사랑호여 다 길너 니엿더니 이
 지경이 되여스미 엇지 아니 가련호리 여복소 아기 어미 무슴 당스실 잇습누 위고 굼기물
 부즈의 밥먹듯 호며 무슴 당스실이 잇단 말시오 호고 천만의 익실 한님 어더 쥬거늘 흥취 칠
 산조귀 겁질톨 벗겨 제비다리 싹고 실노 찬〃 동혀 찬이슬의 언저 두니 십여일이 지난 후 다
 리 완구호여 제곳으로 가려호고 하직홀제³⁴⁾

두 발목이 부러져 떨고 있는 제비 새끼를 발견한 홍부는 펼떡 뛰어들어 제비 새끼를 손에 들고 불쌍히 여기며 급히 치료할 방안을 찾는다. 피를 흘리고 있는 제비 새끼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달려드는 홍부의 마음에서 생명보호사상을 읽어 낼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홍부의 마음은 善인이 지닐 수 있는 아름다운 心性인 것이다.

단지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직접 몸을 움직여 행동으로 제비 새끼를 치료해주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홍부의 인물 성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제비새끼의 환부를 감싸주려고 당사실을 찾는 홍부의 태도에서 보통 사람이면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제비 새끼를 최고의 것으로 정성껏 치료해주고자 하는 德性을 보게 된다. 홍부가 최선을 다해 치료한 덕에 제비 새끼는 回生하여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홍부의 선한 마음과 놀부의 악한 마음이 각각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홍부전>의 권선징악사상이 표현되고 있다. 그 매개체는 각각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의해 치료를 받은 제비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박씨와 악한 의도에 의해 다리가 부러지고 치료되었던 제비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 박씨가 된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우리 가난호기 일읍의 유명호디 듀야 설워호더니 부지허명 고디천양 일
 조의 어더스니 엇지 아니 조홀소나³⁵⁾

끼니를 이으려고 홍부네 가족이 타는 박에서 온갖 보화와 가재도구와 보약 등이

34) <홍부전>(京板本), 柳光秀, 앞의 책. 14쪽. 띄어쓰기는 필자에 의한 것임.

35) <홍부전>(京板本), 柳光秀, 앞의 책. 19쪽.

나와 흥부는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된다. 선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돌아간 상응하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흥부는 제비의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 다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보호하여 살려준 것이었다. 이에 제비 나라의 보상으로 값진 보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흥부와 같이 부자가 되려는 욕심으로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주는 실수를 범한다. 그리고 그 제비가 물어다 준 박을 타면서 금은보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박을 켜고 보니 아모 것도 업고 박 속이 막엄죽흔지라 즈을 쓰져 미술 보고 흥는 말이 "런 국맛슨 본뵈 쳐음으르다 흥며 당동" " 흥다가 미쳐서 또 집우회 올나가 보니 빗 흥통이 " 스투 빗치 누르고 불빗갓튼지라 놀부 비위 동흥여 사가지고 느려와 흥참 트다가 귀롤 기우려 드르니 암조력 업고 전동니가 물신" "맞치이거놀 놀뵈 흥는 말이"박은 농너어 썩어진 박이로다 흥고 십분의 칠팔분을 터니 홀연 박속으로서 광풍이 디작흥며 쏜물기 느오는 소리 산천이 진동 흥는지라³⁶⁾

놀부가 타는 박을 통해 나온 것은 모두 돈을 달라는 사람이나 汚物 등의 놀부에게 화를 미치는 것들이어서 결국 놀부는 가산을 탕진하고 홀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악한 마음과 욕심의 결과로 얻게 된 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선한 흥부가 흥하고 악한 놀부가 망하는 내용은 이 작품의 권선징악사상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다.

흥부는 형 놀부가 아무 것도 나누어주지 않고 쫓아낼 때에 다투지 아니하고 조용히 집을 나오는 모습을 통해 현실을 수용하며 형제우애를 실천한다. 먹을 것이 없어 형 놀부 집에 가서 구걸을 하지만 매만 맞고 오게 돼도 다 받아들이는 넓은 아량과 인내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비의 보은으로 부자가 된 뒤 찾아온 놀부에게 친절히 대하여 놀부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게 함으로 아름다운 우애를 보여준다. 악행을 하고 얻은 박을 타다 폐가망신한 놀부는 결국 흥부를 찾아 간다. 이본에 따라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끝을 맺는 것으로 된 작품도 있고, 어떤 이본은 놀부가 흥부

36) <흥부전>(京板本), 柳光秀, 앞의 책, 50쪽.

를 찾아가 형제우애하며 잘 살았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때의 흥보가 물을 떠다가 저의 형님 전에 드리고 사죽을 모도 주물러서 일어 내켜 노니, 놀보가 그제야 인자 겨우 정신이 돌아와서 아이고 동생 아이고 형님 곤욕이 심하셨지요 아이고 이 사람이 동생 내가 전사에 모든 허물되고 잘못된 일을 동생 부디 용서하소 형님 그제 무슨 말 씀이오 제가 잘못되야 그리된 일이지요 형님 제 살림도 많사오니 서로 인자 절반씩 반분하야 한집에서 우애하고 삽시다 형님 그러세마는 동생 볼 면목이 없네 박 놀보는 개과천선을 헌 이후에 흥보 살림 반분하여 형제간의 화목을 허고 대대로 자식들을 교훈시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모르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화목함을 천추 만세 전하더라 그 뒤야 뉘가 알리 더질더질³⁷⁾

위의 異本에는 흥부가 놀부를 맞이하여 정성껏 대접하고 가산의 반을 나누어주어 화목하게 형제간에 우애를 하며 살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야기의 서두에서 놀부가 흥부를 아무것도 주지 않고 쫓아내던 것과 대조적인 대목이다. 형 놀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주는 흥부의 선한 마음이 작품의 형제우애사상을 빛나게 하고 있다.

〈흥부전〉은 형의 구박이라는 현실을 수용하며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흥부의 착한 마음과 욕심으로 자기 것만을 챙기며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놀부의 악한 마음이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선행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행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권선징악의 정신으로 보여주면서 용서와 형제우애의 소중함을 표현하므로 흥부의 德性을 중심으로 한 수용의 미를 보여주고 있다.

6.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고전에 해당하는 소설 작품들을 대상으로 문학사상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소설의 문학사상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홍길동전〉은 인간이 비인격적인 제도로부터 자유하여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사회가 부정한 사람들로 부터 깨끗하여지고,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37) 〈唱本 朴奉述 唱〉柳光秀, 앞의 책. 606~607쪽.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고뇌하고 활동하고 성취하는 인물의 효과적인 표상을 통해 작품의 아름다운 창조미를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다.

〈춘향전〉은 남녀간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여성의 정절의식, 사회적 부패척결의 지를 문학사상으로 하며, 순수한 사랑과 고난을 이겨내는 내면성, 그리고 행복한 결말을 이끌어내고 있는 인내의미를 고결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심청전〉은 아버지 심봉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부친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헌신적으로 효도하는 심청의 가혹한 마음과 이러한 심청이를 다시 살려내려는 초월적 재생의지, 그리고 당대인들의 꿈의 실현 정신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심청을 중심으로 한 섬김의미를 탁월하게 보여주는 효도문학의 백미임을 드러냈다.

〈홍부전〉은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홍부의 착한 마음과 욕심으로 자기 것만을 챙기며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늘부의 악한 마음이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선행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행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권선징악의 정신으로 보여주면서 용서와 형제우애의 소중함을 표현하므로 홍부의 덕성을 중심으로 한 수용의미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상의 고소설에 나타난 사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 민족의 인간을 중시하는 사상과 정절을 귀하게 여기는 품성과 효를 가정생활의 으뜸되는 덕목으로 실천하는 삶과 형제우애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상을 발견하며 창조미, 인내의미, 섬김의미, 수용의미 등과 같은 문학적 표현의 아름다움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의 문학에 담겨있는 사상과 미의식을 탐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의 고전문학작품들 가운데 상당한 양이 아직 세상에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발굴하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녹아있는 사상과 작품의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개별작품의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21세기에도 변함없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21세기가 꼭 필요로 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다듬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고전문학작품이 추구하는 사상과 그 내적 가치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상과 아름다움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姜漢永, 申在孝 판소리 辭說 여섯마당集, 螢雪出版社, 1991.
-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全集編纂委員會 編, 六堂崔南善全集 14, 玄岩社, 1974.
- 金京完, 고대소설과 개화기소설의 기독교적 의미, 도서출판 月印, 2000.
- _____, 韓國小說의 基督教 受容과 文學的 表現, 태학사, 2000.
- 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 教學社, 1981.
- 金東旭, 國文學史, 日新社, 1987.
- 柳光秀, 興甫傳研究, 啓明文化社, 1993.
- 蘇在英, 古小說通論, 二友出版社, 1987.
- _____, 조선조 문학의 탐구, 아세아문화사, 1997.
- 설성경, 한국고전소설의 본질, 국학자료원, 1991.
- 玩巖 金鎮世 先生 回甲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編, 韓國古典小說作品論, 集文堂, 1990.
- 李廷卓, 韓國文學散藁, 啓明文化社, 1990.
- 一平 趙南權先生七秩頌壽論叢刊行委員會, 韓國學의 存在와 當爲, 도서출판 다운샘, 1997.
- 全圭泰 編, 韓國古典文學大全集①·③, 世宗出版公社, 1971(2).
- 조규익, 가곡창사의 국문학적 본질, 집문당, 1994.
-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1991(8).
- 趙潤濟, 韓國文學史, 探究堂, 1987.
- 崔台鎬, 韓國古典文學研究, 역락출판사, 2000.
- 최혜진,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 역락출판사, 2000.

Abstract

The Thought and Literary Beauty of Korean Classical Novels

Kim, Kyung-Wan

This study examined the thought and literary beauty of Korean classical novels.

In *Hong Gil Dong Jun*, I have affirmed the beauty of this work revealed in the effective representation of a suffering, acting and achieving figure. This work is based on the thought of liberating people from inhuman regulations, cleansing the society of corruption, and pursuing a community where sincere people live happily.

I have declared *Chun Hyang Jun* has its fabulous literary value in that it draws pure love, patience of overcoming adversity and a happy ending, with the literary grounds of love beyond classes, woman's fidelity, and abortion of social corruption.

I have confirmed *Shim Chung Jun* is the acme among literary works on filial piety in which Shim Chung's devoted and sacrificing attitudes to please her father, surrealistic will to revive Shim Chung, and the spirit of people then to achieve their dream make a beautiful harmony in the work.

Hung bu Jun was assured to be a novel emphasizing forgiveness and love among siblings along with the reward-the-good-and-punish-the-bad thought

in which good deeds bear good fruits and evil deeds end up with bad fruits. This is reflected in the sharp contrast between Hung Bu's kind heart which values lives and Nol Bu's greedy and selfish mind.

From those literary thoughts and beauties found in the above works, I could reaffirm our nation's thought to honor human beings, pure love, brotherly affection and filial piety as the first family motto.

Literary philosophy of a novel is the foundation for the beauty of a work. I think it is an important task for us to inquire the thought and an aesthetic sense embedded in our literature. A great deal of our classical writings has not been introduced to the world. We should continue in the 21st century to explore and introduce them and study the literary thought and merits of each work. These efforts will be essential resources for enriching our liberal artistic knowledge because literary philosophy and the beauty of classical masterpieces are consistent with the common value that human beings pursue.